

# 다니엘 케이 다코 박사, 감옥서신, 28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에베소서 5:1-21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8,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에베소서 5:1-21입니다.

우리의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 강의를 했고, 바울이 쓴 이 훌륭한 책의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4장을 살펴보고, 4장이 어떻게 이러한 대조적인 패턴으로 끝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미덕과 악덕으로 이끌었고, 분노, 말의 효과, 직업 윤리 등의 주제에 광범위하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교회에서 이러한 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온유함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1장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돌아가지 않고, 4장이 이 편지의 윤리적 부분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 부분에 이어 바울은 4장에서 많은 심각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5장을 여는 순간, 그는 5장에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추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적 역학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일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될 수 있는지, 저속한 표현을 피해서 중독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은 그가 그냥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5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5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신 것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것은 처음에는 매우 쉬운 진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문장을 살펴보면,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저는 믿는 사람들이 특정한 정체성 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특정한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함과 의로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로써 새로운 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기한 모든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인 친족 관계의 틀에 놓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친족 관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틀지어 놓았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서의 도덕적 지침은 법적 틀이 아닙니다. 저는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평화는 법정에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실제로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만나서 누가 옳고 그른지 증명하는 것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종종 반박하거나 승인하기 위한 다툼의 틀이 아닌 존중의 틀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을 느끼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열등감과 패배자처럼 느끼게 합니다. 아무도 패배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특정한 행동 방식을 채택하도록 강요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동기가 없을 가능성이 큼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특정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는 매우 이런 방식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하지만, 그것은 가족의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우리의 논의 과정에서 다시 나타날 중요한 미덕인 사랑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악한 할아버지가 사소한 실수에도 당신의 머리를 때릴 기회를 노리는 것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규칙을 지킬 수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때때로 도덕적 원칙이 특정한 방식으로 채택될 때,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감옥이 될 때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다른 이미지를 내놓으며,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신을 모방하는 자들의 표현을 풀어내는 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강조하고 다음 강의에서 다룰 것은 사랑하는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교회나 다른 곳에서 고대 문화권에서 남자나 남편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때때로 금욕주의자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법률주의자였고, 가족 구성원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른 것을 제안한 듯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 사실,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모델 관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전 강의에서 제가 종종 다른 상황에서 심각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것을 확립할 것인지 살펴보세요.

그는 그것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임을 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분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번역될 수 있는 비교 분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으니 그렇게 행동하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적절하게 번역된 대로, 여러분은 실제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요 학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Awana 에 갔을 텐데 , 로마서 5장 8절에서 뭔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 과정을 따르는 신자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독자들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미 위대한 사랑으로 언급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는 자이자 수혜자로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보여 주신 아버지의 생활 방식을 본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의구심을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Elia를 일부 페미니즘 프레임워크에 끌어들이 너무 멀리까지 끌고 간 서양 학자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사고방식이 상당히 페미니스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싱글맘에게 자랐습니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제 딸들이 많은 분야에서 주로 남성이 운영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탁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직위에서 여성의 부상을 보는 동안, 저는 그것을 깊이, 깊이 감사하는 사람 중 한 명이며, 제 아이들을 격려하고, 저를 키우고 사업에서 매우 열심히 일한 싱글맘인 어머니를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폴에 대한 토론에서 발견된 페미니스트 담론의 몇 가지 극단적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80년대와 90년대의 저술, 특히 신약에서 이 페미니즘 의제를 취한 사람들은 일부 가부장적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학문적으로 우리는 현대적 개념을 집어 올려 고대 세계에 강요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시대착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때, 그것은 매우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썼을 때, 그의 독자들은 그것에 공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만약 그들이 항상 그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다루는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랐지만, 아버지가 너무 잔인해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을 갖춘 후, 모방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신이나 신들을 모방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은 책에서 기억하겠지만, 그리스 신들 중 일부는 다른 여신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 중 일부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적 측면에서 신을 모방한다는 개념은 매우,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 문헌에서, 로마 문헌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각 신은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아프로디테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추종자들은, 당신이 아프로디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때때로 친구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신들은 특정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격을 부여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가 언급할, 여러분이 알지 못했을 법한 한 명은 바커스입니다. 바커스는 그의 다른 이름인 디오니소스입니다.

그게 와인의 신이에요. 술을 좋아한다면, 그게 당신이 동일시하는 신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치유의 여신이나 아스클레피오스를 치료하는 질병의 여신이 있죠.

이러한 신들의 특성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철학자, 도덕가 또는 수사학자는 때때로 독자나 청취자에게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들의 덕스러운 특성을 본받으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기독교인에게 편지를 써서 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먼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는 없는 특정한 우주론적 틀이나 세계관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서구 세계 밖에서는 많은 문화가 이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즉,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사이에 그렇게 뚜렷한 구분이 없습니다.

영계와 물질계 사이에는 그렇게 뚜렷한 구분이 없습니다. 물질계와 형이상학계는 서로 얽혀 하나의 우주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 특정한 삶에서 삶을 살면서 신성한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신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리 먼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서로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신들 중 일부가 그들의 특성에 따라 다른 장소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그들의 신도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온 신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경배하고 싶어했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신이 아니야. 그 개념은 이 고대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신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양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먼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말씀하시는 신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게 하신 신은 그들이 받은 그의 사랑의 미덕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부분에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알고 싶어하실 겁니다.

당신은 신을 모방하고 있지만, 그 신은 이번에 신 이상입니다. 신은 신봉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신은 저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개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의 모델로 데려올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니까? 그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게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사실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바탕으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덕스러운 자질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큰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1장. 그러면 그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큰 형이 당신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큰 형 예수님.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를 모델로 소개하고, 예수가 보여준 사랑을 믿음의 공동체에 존재해야 할 모델이 된 사랑으로 소개합니다. 그들이 사랑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표현해야 하는지 실제로 알고 싶다면, 예수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맥락으로 조금 안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한두 가지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필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헬레니즘 유대인 작가입니다. 그는 옛날 사람 중 한 사람이 적절하게 말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간은 친절을 보이는 것보다 신에 더 가까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들이 신을 본받는 것보다 더 큰 선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화면에서 따라가면, 그리스어를 넣은 이유는 그리스어가 에베소서에 있는 구조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어 맥락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 싶다. 무소니우스 루푸스, 인정하건대,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다.

사실, 그의 작품과 단편은 매우 적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아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신과 비슷하다고 썼다. 그는 신에게서조차 신중함, 정의, 용기, 절제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과 같은 미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은 이러한 미덕을 소유함으로써 탐욕의 쾌락에 정복당하지 않고, 욕망, 시기, 질투보다 우월하며, 고상하고, 자애롭고, 친절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형상을 한 사람도 자연에 따라 살 때 그와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는 즉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소니우스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동물은 신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신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므로, 인간은 신의 특성을 본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끔 이런 철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면 어리둥절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의 글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냈을까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글썄요, 중독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 발견한 것 중 하나는 날카로운 철학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신에 대한 개념에서 매우 깊이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신, 힘의 근원으로서의 신, 그 신들이 우리가 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매우,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무소니우스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이 중에서 한두 가지, 특히 네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1장 5절에 있는 입양이라는 개념을 다시 언급하는데,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연구 세션을 기억한다면, 저는 그것을 숨가쁘게 부르는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자녀라는 언어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아버지의 덕망 있는 품성을 본받는다라는 개념은, 생략해서 죄송합니다만, 밑줄 친 대로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친족 의무는 이 측면에서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본받을 필요성을 호소했을 때, 아이들은 이제 사회와 문화적 규범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고, 여기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작가 중 한 명인 가짜 이소크라테스를 좋아합니다. 그는 "어떤 운동선수도 경쟁자와 경쟁할 의무가 없으며, 당신도 아버지의 삶의 방식과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질을 본받기 위해 경주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동사에 주목하세요. 그는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성을 이러한 표현과 모방으로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한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예수는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자기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거의 달콤한 향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를 먼지에서 털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기회를 주셨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않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구절을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베푸는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존재할 때, 그것은 바울이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아름다워집니다. 그 달콤한 향기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킹 제임스와 다른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달콤한 향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만한 희생에 대한 궁극적인 관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쳐진 것을 받아들이고 취하실 때.

나는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 향기로운 양초를 구해서 불을 붙이고 그 불꽃과 향이 올라오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이미지일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사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두 군데에서, 모든 기름은 주님이시다라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지방은 주님이라는 대사는 잊어버리세요. 달콤한 향기에 집중하세요. 어느 날 조교가 와서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마른 편이라 살을 좀 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왜요 ?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우리가 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름은 주님께 속하고 우리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무시하고 향에 집중하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즉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은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그 달콤함의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26장, 내가 네 성읍을 황무하게 하고 네 성소를 황폐하게 하며 네 기분 좋은 냄새를 맡지 아니하고 네 향기를 맡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이 기쁘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3절과 4절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사랑의 표현은 이 달콤한 향기처럼 올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세요. 정말 크고, 크고, 큰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성적 부도덕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탐욕은 성도들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할 대로 너희 가운데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움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저속한 농담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풀이 여기서 뭘 하는지 보시나요? 풀에 대해 뭔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풀을 좋아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풀을 싫어해요.

저는 그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풀을 사랑합니다. 그가 여기서 하는 일은 사랑의 모든 중요한 미덕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방식으로 할 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에게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개념에서 그는 언어를 바꾸어 왜곡된 사랑의 표현, 즉 성적 습관과 대조시켰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사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내면의 성적 욕망, 열정이며,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위해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열정은 그들이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죄들, 즉 성적 부도덕, 더러움, 탐욕이나 탐욕도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름 붙이는 것이 그저 재미삼아 이름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붙이기나 이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때때로 명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이에서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참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처음 세 가지는 성적 죄입니다. 성적 부도덕, 즉 *pornia* 라는 단어는 잠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불순함과 더러움은 보통 유대인의 희생 제도와 연관되지만, 때로는 성적 불순함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탐욕은 때때로 영어로는 탐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성적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탐하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열된 다음 세 가지 악덕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저속한 농담.

풀은 제가 풀어낼 시간이 있다면 매우, 매우 심각한 여섯 가지 악덕을 나열했는데, 저는 이 특정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것에 실제로 시간을 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실례합니다. 처음 세 가지는 성 관련이고, 두 번째 세 가지는, 처음 세 가지는 성 관련이고, 두 번째 세 가지는 언어 관련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폴은 그것을 대조할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미덕을 사용할지 추측해 보세요. 그는 감사라는 크고 중요한 미덕을 꺼낼 것입니다. 미덕 하나.

그는 자신이 열거한 여섯 가지 악덕을 대조하기 위해 한 가지 미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서양 문명에서 감사의 미덕이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감사가 미덕으로 제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감사는 예의 바른 시민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고귀한 미덕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최근에 로마 스토아 학파의 한 사람인 세네카를 읽었는데, 그의 자선, 베푸는 일, 은혜에 대한 논문을 읽으면서, 바울처럼 이 철학자가 관대함, 관대함, 감사를 강조하는 방식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그들은 스스로와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권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선행은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주장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는 실제로 바울이 그의 가르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가 그의 서신에서 직접 보여준 감사의 미덕은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일한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절.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는 포르티아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돌아가서, 몇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른 강의를 들으면 여기저기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성적 부도덕으로 번역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단어는 간음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경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 단어가 창녀와 매춘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혼에서 이 단어는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지칭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예외 조항에서와 같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성적 부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싶어할 겁니다. 그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여성에게 매우 불공평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의 이전 강의 중 하나에서 저는 남성이 결혼하고 첩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막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성적 부도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뉘앙스가 여성 쪽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한 여성이나 결혼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여성. 그래서, 여성이 죄인이 됩니다.

그 남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 분명한 도덕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플라톤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배웠다면, 플라톤의 사고 패턴에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적 부도덕에 대한 그의 생각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으로는 아무도 자신의 결혼한 아내를 제외하고는 존경받는 시민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녀의 사생아와 사생아, 또는 남성의 불임의 정자, 본성의 차이.

또는, 남색 행위를 완전히 억제하는 한편, 만약 남자가 신의 축복을 받아 거룩한 결혼으로 결혼한 아내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고용되거나 조달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종교적 언어에 유의하세요. 그는 다른 남성이나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가 외계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법에 따라 그를 우리 국가의 영예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플라톤에 대한 존경심을 죽이겠습니다.

플라톤은 당신이 아내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남자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비밀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회에서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요즘 우리 정치인들 중 일부는 플라톤을 읽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리스인들의 그런 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은 오히려 여성의 문제이고 남성의 문제가 아니며, 남성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의 미덕과 악덕을 비교하는 제 동료들과 강의에 앉으면, 그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의 성적 부도덕은 잊어버리세요. 바울은 성적 부도덕과 우리가 간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음행, 바울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인 개념에서 왔고, 그들이 하는 일이 내가 당신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종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플라톤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자들은 감히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때때로, 이 학자들 중 일부는 그들만의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독교 윤리에서 성경이 남성이 배우자를 속일 수 있는 도덕적 틀을 가르치고, 그것을 숨길 수만 있다면, 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남성들은 그런 면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필로가 실제로 아주 잘 설명한 유대인적 틀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청소년이 14세가 되면 첩과 매춘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제지 없이 자신의 인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즉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창녀는 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적 부도덕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필로가 여기서 제안한 것처럼 가서 누군가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악스러운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는 강의를 돈을 내지 말자.

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성적 부도덕, 탐욕, 더러움, 불순함도 신앙 공동체에서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야 하며, 사악하고 온갖 음란함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감사절에 사용한 단어는 제가 잠깐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15개 중 12개가 바울에게 등장합니다. 바울은 감사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그 자질을 보여주고 싶어하며, 그 미덕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언급하는 데 더 많이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섯 가지 악덕을 대조하는 하나의 큰 미덕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존재해야 하는 개인적 미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행하거나 당신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자격은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서 배은망덕함에도 후회나 부끄러움의 감정으로 맞이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감사, 고마움은 미덕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성행위와 언어의 악덕에 비해서, 그가 그들이 보여야 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필로와 같은 초기 작가 중 일부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고, 모세는 교육의 열매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는다고 매우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것은 감사, 감사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 eucharistia , 거룩함 .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은 오직 하나, 즉 감사를 표현하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필로의 요점은 감사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고귀한 미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그의 논문에서 우리의 수많은 큰 악덕 가운데서도 혜택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스토아 철학자이며, 배은망덕만큼 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어보면, 그는 로마적 맥락에서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과 사회에서 상식적인 예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거의 문자 그대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그 주변의 교회에서 감사는 그들의 맥락에서 분명하고 눈에 띄는 미덕이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모든 악덕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그러한 행동의 존재에 대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불순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와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종류의 라이프스타일을 살면서 성적 행동이나 언어 사용 방식을 억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거나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스러운 자나 탐욕스러운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큰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동업자가 되지 말고 아무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오, 미안합니다.

여기서 읽어 볼게요. 화면을 따르지 마세요. 아무도 빈 말로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그는 이 틀을 말하고, 이제 그는 주요 대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주요 대조에서 바울은 다시 옵니다.

그는 여섯 가지 미덕과 여섯 가지 악덕을 하나의 미덕과 대조시켰습니다 .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빛과 어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대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빛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이미지에서, 가끔 해설자들이 설명할 때, 나는 그 중 일부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들은 빛이 여러 개의 손전등이 돌아가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아니요, 저는 폴의 요점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미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장소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둠을 정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빛이고, 그들 주변의 세상은 어둠입니다.

7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하고, 옳고, 진실한 것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도록 노력하라.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이런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빛에 의해 폭로되면 그것은 보이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잠깐, 이 대조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대조합니다. 그 시험을 주의 깊게 따르면, 또 다른 것은 그가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대조하는지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믿는 자의 존재에서 태어난 것이 열매, 나무의 자연적 산물, 정체성에서 나온 자연적 특성, 그리고 존재감의 관점에서 더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빛의 열매(9절)를 어둠의 열매 없는 일과 대조합니다.

빛의 열매는 빛이 비칠 때 빛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둠 속에서 일하는 이러한 열매 없는 상태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라틴어 단어를 여기저기에 던진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매우 구두적인 학술적 방식인 *a d Verecudiam* 의 주장은 친구들에게 인상을 주고 싶다면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부터의 논증. 그것은 고대 수사학에서 실제로 무언가가 너무 부끄럽고 당혹스럽기 때문에 관찮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특정 행동의 부끄러움, 당혹스러운 부분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 사람들이 긍정적인 대응자를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폴은 주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빛처럼 살라.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몇 번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여 걸으십시오. 걸으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빛처럼 사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문자 그대로, 9절, 빛의 열매는 선하고 옳고 참된 모든 것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하고 옳고 참된 모든 것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행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달콤한 향기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판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그들에게 또 다른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하지만 대신, 이게 당신의 일입니다. 이게 빛이 해야 할 일이에요. 노출시키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니, 어둠의 열매 없는 일을 폭로하라. 무엇이든 빛에 드러날 때에는 보이게 된다.

상상해보세요.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거친 장소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온갖 사악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마약을 하려고 하고 온갖 부적절한 행동에 연루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큰 빛을 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켜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울의 요점은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빛에 의해 생산되는 것은 없지만 존재의 본질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상태는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온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그는 두 가지 미덕만을 강조했지만, 사랑의 미덕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감사를 소개했을 때, 그는 그것을 여섯 가지 악덕과 대조했습니다. 이러한 미덕이 불가피할 때, 그것은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즉 신자들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날 때, 그들은 결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어둠의 열매 없는 일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덧붙일 말은, 어둠의 열매 없는 일을 폭로할 때, 인기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기 없는 사람이 될 준비를 하세요. 반대에 직면할 준비를 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온갖 이름으로 부를 준비를 하세요.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비웃기 위해 신부라고 부릅니다.

조롱당할 준비를 하세요. 저는 기관에서 어린 크리스천 소녀들이 처녀라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저 가볍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핵심에 노출시키고, 그것은 그들을 강타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지점까지 당신이 그들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폴, 저는 14절의 경종소리를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잠자는 신자들, 아침형 인간이 아닌 내 딸 중 한 명과 함께 있는 신자들을 위해, 그녀는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녀를 놀리고 싶어서, 알다시피, 우리가 빨리 걷거나 뭐 그런 걸 하고 싶어한다고 말하면, 그녀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그래서 아침에 그녀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만들어야 해요. 뜨거운 물을 틀어서 차를 마셔야 해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면, 이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해요.

그녀가 차를 다 마시고 나면 완전히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삶에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빛날 수 없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여기에 인용합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거의 졸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여. 그게 당신이 그 단어를 쓰는 방식인가? 졸리거나 의자에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일어나, 일어서, 빛나세요. 빛나서 변화를 만들어내세요. 죽음에서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제 , 저는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한두 명의 해설가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빛난다면 , 당신은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나머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용문이 이 특정 세션을 마치면서 바울이 한 말을 흉내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읽어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한 말과 바울이 여기에서 골라낸 주제를 읽어보자.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염두에 두자 .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왔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깝습니다. 악의 어두운 밤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사는 사람들이 거친 파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대로 행합시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음행이나 악행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누구를 질투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죄스러운 본성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만족시킬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4과 7은 여기서 같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도둑처럼 여러분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식들이요, 너희는 낮의 자식들이요,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같지 말자. 그들은 잠들어 있다.

대신, 우리는 깨어 있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통제합시다. 잠자는 사람은 밤에 잔다. 취한 사람은 밤에 취한다.

깨어나세요, 잠자는 모든 사람들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사는 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는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촉구받습니다.

따라야 할 모델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여섯 가지 악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적 행동의 악덕과 말하는 방식의 악덕.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 사이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했습니다 . 그런 다음 그는 불신자의 삶과 신자의 삶, 즉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그는 우리 안의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생각하고 다음 강의에서 5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왜 빛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잠자고 있는가? 불신자들 사이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그들은 나에게서 다른 것을 보는가? 아니면 나는 카멜레온처럼 행동해서 불신자들 사이에 있을 때 그들과 같은 경향이 있는가? 아니요, 빛과 어둠은 동기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은 빛나고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는 21세기에도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빛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빛 속에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8,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에베소서 5:1-21입니다.